

## 北 6자회담 복귀 전격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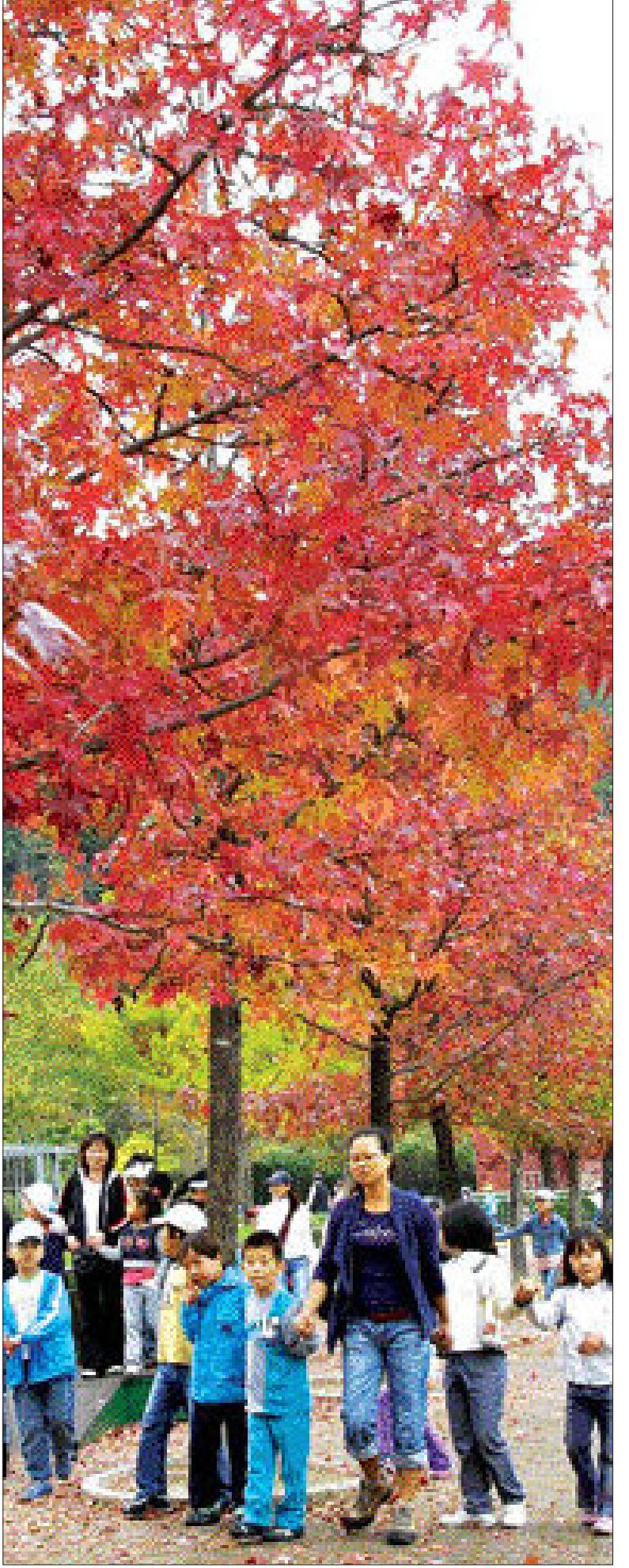
### 북·미·중, 베이징 비공식회담서...전제조건 없어

북한과 미국, 중국 3개국이 지난달 31일 베이징에서 수석대표 비공식 회담을 갖고 1년 가까이 중단돼 온 6자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11월 초순 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측의 건의에 따라 중,북,미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베이징에서 비공식 회담을 갖고 6자회담 참여국들이 편리한,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연다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 3국 수석대표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의 계속적인 추진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중국 외교부의 발표 후 베이징주재 미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국의 6자회담 조기재개 합의 사실을 확인하고 참여국들이 모두 동의할 경우 6자회담이 이르면 11월초

나 12월에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6자회담 전제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고 회담에서 양보가 이뤄질 경우 핵 포기 용의를 재차 밝혔으며, 회담이 재개되면 미국4의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은 지난해 11월9일부터 11일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회담을 열고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이를

전제로 한 대북 '에너지 지원 용의 재확인' 등의 내용을 담은 6개항의 공동성명(9.19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달리 위조와 마약 밀매 혐의를 주장하며 대북 금융제재를 취함에 따라 북,미 양국간 대치상태가 풀리지 않아 교착상태가 계속됐고 지난 7월5일의 북한 미사일 발사와 10월 9일의 핵실험으로 과국 직전에까지 이르렀다.  
북한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까지 제재조치에 나섰고, 특히 북한의 최대 후원국이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로 탐지위안 국무위원을 미국, 러시아, 북한에 파견 중재외교를 전개했었다. /연합뉴스



## 외교안보라인 오늘 개각

통일 이재정·외교 송민순·국방 김장수씨 유력

## 청와대 다른 길 간다 우리당

盧대통령 "민주당과 통합 못해" 金대표 "정치현안 손떼라"

국정원장 김만복씨 압축

노무현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통일, 외교, 국방장관과 국정원장 후임 인선을 1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달 31일 "2~3배수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1일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위한 인사추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대통령 재가까지 나면 바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 통일부장관에는 이재정(62) 민주당 수석부위원장, 외교교통상부장관에는 송민순(58)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장관에는 김장수(58) 육군

참모총장, 국정원장에는 김만복(60) 국정원 1차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안보실장으로는 윤광웅 국방장관, 김하중 주중대사와 다른 국방분야 전문가 1명이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다른 외교안보팀 장관 인선과 함께 발표할지는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안보실장을 국방쪽으로 할 것인지, 외교쪽으로 할 것인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후임 안보실장을 함께 발표할 것인지 여부도 내일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논의 결과에 따라 안보실장 발표는 뒤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親盧-신당과 정면대립

정계계편을 둘러싸고 여권 내 '통합신당파'와 '친노(親盧) 세력' 간 대립 구도가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과의 합당은 절대 불가'란 입장을 밝힌 것과 함께, 통합신당파들이 노 대통령과의 선긋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양측간 정치적 대립각이 깊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노무현 대통령은 5·31 지방선거 직전 '범여권 통합파'인 엄동연 당시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에게 "나는 민주당과의 통합에 절대 동의할 수도 없고, 동의하고 싶지도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10·25 재보궐 선거 직후 자신과 가까운 의원을 청와대로 불러 "작은 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 1천만명을 어떻게 작은 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

은 당내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민주당과의 통합론, 이른바 통합신당론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으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통합신당파는 노 대통령과의 선긋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이후 비상한 상황을 대비하고 극복하기 위해 안보·경제 위기 관리체제로서의 내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은 널리 인재를 구해서 드림팀을 짜고 남은 임기 동안 여기에 집중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노 대통령에게 안보·경제 등 국정현안에 집중하고 정계계편 논의 등 정치현안에서는 손을 떼야 한다는 우회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천정배 전 법무장관도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우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오만한 자세를 보였다"며 "빠져나 자기반성을 전제로 정적

적 노선과 비전을 함께 하는 세력이 함께 모여야 한다"며 재차 자신의 신당론을 강조했다. 그는 통합의 대상으로 "민주당이 잠재적 대상일 수 있고, 지금 당에 몸 담고 있지 않지만 대권출마가 예상되는 분들이 있고, 고건 전 총리같은 분들도 있다"고 노 대통령과 선을 그었다.  
친노 그룹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친노그룹인 참여정치실천연대(참여연대) 김형주 상임대표는 이날 "이제는 '수(數)의 게임이고, 현재 상황은 우리만의 목소리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본격적인 당내 연대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은 일단 의견연구센터 등 다른 친노그룹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과는 별개로 중도성향의 의원들을 상대로 연대 움직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친노 핵심인 이광재 의원은 김 원내대표와 천 전 법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자신들의 이해타산에 얽매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당에도 손해가 될 뿐"이라고 반격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깊어가는 가을 한 여름 신록으로 하늘거렸던 도심 가로수에도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찾아왔다. 시민들의 휴식처인 광주 우치동물원 가로수도 예쁘게 물들었다. 소풍 나온 어린이들의 낙엽 밟는 소리 속에 가을이 깊어 간다. /위리량기자 jrwi@kwangju.co.kr

후원학원 장학50% 학사반 운영  
남부대학교  
www.nambu.ac.kr  
전남과학대학  
www.chunnam.ac.kr

대한민국통가정보  
국내 최고 권위의 물가전문지

한파나도 "전남쌀" 전국 최고의 쌀로 또다시 입증!

한국 브랜드를 BEST 1등급 3개 입상, 4년 연속 한국 최다 상점